

Investigation of Hakkanese Women's Wear and Indigo Dyeing in Kaohsiung and Pingtung Areas

Hui-Mei Cheng

Shih-Chien University

Clothing is one of the crystals of human art. Since ancient times, women have been endeavored in weaving, needlework, and dyeing. In addition to satisfying the family's physical needs as protecting and keeping the body warm, clothing also demonstrates the characters and the wisdom of a race concerning the matters of style, structure, cutting, decorations,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the making process of the Hakkanese's blue dress. Concerning the matter of structure, actual clothing is analyzed as the major sources. Meanwhile its history and literature are regarded as supporting materials. Targeting the Liuduai area, the project collects and investigates the traditional Hakkanese blue dress in the Liuduai area, including material and information from the researcher's collection, the Hakkanese Museum in Pingtung, the Kaohsiung History Museum, and the Clothing Museum at Shih Chien University. The sizes of the clothing are measured and their structure analyzed. Concerning the blue dyeing, field study is the major methodology. The researcher interviewed the tailors and local elders.

Concerning Hakkanese women's clothing, generally people call it "long dress," "blue dress," or "big collar shirt"(in speech, people regard the right hand as the big hand; so the collar over

the right chest is regarded as the "big collar." Meanwhile, the inner collar is called the "small collar"). "Long dress" means a Chinese gown with the length down to the knees. As for the name of "blue dress," it means the color of its fabric. And "big collar shirt" stands for its style" (Lin 1989). At the big collar and the sleeve flaps of the Hakkanese blue dress, there are color rims as decoration. For young women, in addition to the color rims, embroidery and thin color strips are also sewed to it. It is said that the style of this blue dress is inherited from the Qing Dynasty (Zhung 1998). The big collar shirt of the Hakkanese women in northern Taiwan resembles that of the southern Fujianese's. At the edge of the sleeves, there may not be sleeve flaps on them. Regardless of these facts, the blue dress has its certain style and special meanings for the Hakkanese women. "Hakkanese blue dress" is a special term in traditional Taiwanese clothing it means the big collar shirt of the Hakkanese women in the Kaoshiung-Pingtung area.

The Hakkanese blue dress was simple, serving the identification purposes within their cultural context. The decorated parts were mainly along the rim of the big collar

and the edges of the sleeves. The decorations were mainly embroidered floral patterns, major decorations on young women's blue dress. For middle-aged women, they tended to use white strips as decoration. For the elder women, they did not decorate their shirt at all, wearing it simple and neat. Concerning the cutting, only a small amount of cloth was required to make a Hakkanese blue dress. The small collar (or inner collar is covered in the big collar) was made in the manner of the short collar or connection. The joint at the collar was made by sewing two pieces of fabric together, showing their frugality and intelligence fully.

The fabrics used in the Hakkanese blue dress were mainly cotton and flax. Hardly anyone used silk. The colors of the fabrics were mainly "cyan, blue, and black." The blue herbs used in making Taiwan blue dye were "mountain blue" and "wood blue." The mountain blue mainly grew in the northern Taiwan, at low altitude areas along the valleys with sunshine at their back. About "wood blue," it was a different kind of plant that spread over a large area with sub-tropical climate. Its leaf was in feather shape, with light red flowers in the shape of tassel. Its seeds were wrapped in black bean stalks. In the Liuduai area, the Hakkanese mainly used wood blue as their dye. The process of making blue dye with "sedimentary method": blue herb→soaked it with water (to release its blue color)→took out the branches and leaves→added lime and stirred it well (when it came in contact with the air, it would be oxidized and form small blue bubbles). With the weight of the lime, the blue color would sink onto the bottom in muddy form. After draining the water away, it became

the "blue sediment" dye.

From cutting, the structure of the Hakkanese blue dress was quite simple, belonging to plane cutting format. Its wide and spacious design was suitable for doing labor jobs. For them clothing needed to be practical and functional, not decorative or illustrative of their wealth.

There is a long history of the craft blue dyeing in China. Blue-cyan dye is a kind of natural and environmental friendly dye. The color tone of the plant dye appears to be elegant and charming; it is not comparable with chemical dye. Concerning traditional clothing, it records the traces of the development of the race, which is one of its implications. The Hakkanese's blue dress is a glorious sign and a traditional lexicon that articulates the determination, diligence, and frugality of Hakkanese women. Concerning the making of modern clothing, we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making it glamorous and fashionable, but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harmonious with mother-nature. These are the matters people should consider seriously and be concerned about.

육퇴객가남삼(六推客家麗衫)과 남염(麗染)의 연구

鄭惠美

實踐大學

복식문화는 인류생활예술의 지혜의 결정체이 하나로, 예로부터 배짜기와 물들이는데 힘써왔으며, 가족의 보온과 보호 등의 생리적 필요에 만족하는 것 외에, 복식의 형식과 구성에서 재단방식·의상의 풍격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특색과 지혜를 발휘하지 않은 것이 없다. 본문 연구의 주요목적은 객가남삼의 구조와 제작과정에 두었으며, 남삼구조의 연구에 있어서는 실물분석에 기초를 두고, 역사문헌을 보충하여, 필자의 개인 수장품과 병동(聯東)백가화판, 고웅(高雄)역사박물관, 그리고 실천대학교복식박물관의 관련 수장품을 포함하여, 육퇴지역의 대를 물려온 남삼에 대해 수집조사를 하고, 이에 의복 사이즈의 측량과 구조분석 작업을 병행하였다. 남염연구는 야외조사를 위주로, 실제로 지방 연장자를 방문하여, 남염 공예전문가의 탐방취재와 남초채집·염료제작과정을 거쳐 남염 작업순서를 기록함으로써, 육퇴지역객가 복식문화의 정수와 선조들의 생활지혜를 발굴 기록에 목적을 둔다. 객가부녀의 전통의상은, 일반적으로 「장삼」, 「남삼」또는 「대금삼」(오른손을 대수라 하여, 윗옷의 오른쪽 가슴을 여미는 걸 쪽 부분을 「대금」이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안쪽은 「소금」이라고 한다. 「장삼」은 옷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것을 가리키며, 「남삼」은 옷감 색깔을 말하며, 「대금삼」은 그 여밈의 형식에 기인한다(임성자, 1989). 객가 남삼은 앞여밈과 소매밑단의 접는 부분에 테를 두르며, 젊은 부녀들은 그 외곽에 무늬 있는 띠를 두르는데, 이런 남삼의 형태는 청대로부터 전해오는 것 이라고 한다(종철민, 1998). 북부 객가부녀의 대금삼과 타이완 민남 부녀의 대금삼은 비슷하며, 소매에 접는 부분이 꼭 있는 것은 아니다. 남삼은 객가복식 문화에 있어 그 특수한 형식과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객가 남삼은

대만 전통복식문화에 있어 전문용어화 되어 있고, 특히 대만 고웅병동일대 객가부녀의 대금삼을 말한다.

객가 부녀들은 매우 근면하며, 편리성을 위해 주로 상의와 바지를 입고, 치마를 즐겨입지 않는다. 일할 때는 일반적으로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 앞섶을 바지 허리춤에 접어 넣어 「짧고 뒷단이 긴」 「노동복」이 되고, 집에 들어가 실내에서는 앞단을 원래대로 빼내어 「앞뒤 길이가 같은」 「일반평상복」이 된다. 일할 때 앞단을 허리춤에 넣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남삼의 양 옆은 트임을 높게 뜬 것은 일반 민남 대금삼의 트임 형식과 크게 다른 점이다.

객가남삼의 장식은 매우 간단하며, 문화적 맥락에서 식별되는 의의가 있다. 장식부위는 주로 대금, 소매단의 배색두름과 띠이며, 두른 부분은 다색 자카드 조직으로 젊은 부녀들의 주요 장식이다. 중년 부녀의 남삼은 흰색 천으로 테를 두르며, 노인들은 장식을 하지 않아 소박하고 간결하다. 옷감의 사용에 있어서의 객가남삼의 재단은 매우 간소하다. 소금(또는 내금, 대금에 가려진 안쪽)은 짧거나 혹은 천을 이은 형식이며, 심지어는 두 가지 이상의 천을 이어댄 것도 있어, 검소의 미덕을 충분히 보여준다.

육퇴객가 남삼의 옷감은 면을 사용하며, 마와 비단은 거의 없다. 옷감 색깔은 「청·남·흑」의 세 종류가 대부분이다. 대만 남염에 사용되는 남초식물은 주로 「山麗」과 「木業」 두 종류이고, 산남은 주로 대만 북부에서 자라며, 저해발의 골짜기를 등진곳에서 잘 자라며, 잎은 큰 편이고 가을에 작은 나팔모양의 열은 보라색 꽃이 핀다. 심은지 2·3년 후 매년 5월과 10

열 두 차례 줄기와 잎을 수확하여, 침전법 가공으로 염료를 만든다. 목람은 종류가 많고 분포 지역이 넓다. 열대부터 아열대까지 모두 번식에 적합하며, 잎은 날개모양이고, 꽃은 열은 빨강의 이삭모양으로 씨는 검정꼬투리에 싸여 있다. 육퇴객가 남삼은 주로 목람을 사용한다. 「남전」염료 「침전법」 제작과정: 남초 → 담그기(남색색소빼기) → 가지 건져내기 → 석회를 넣고 충분히 짓는다(공기와 접촉해 양화하여 남색의 작은 거품이 된다). 석회의 무게로 인해 바닥에 가라 앉으면 물을 걸러낸다. 이렇게 하여 고체상태의 남전염료가 된다.

남전염료는 일종의 불용성 남색소 염료로, 섬유와의 친화착색작용을 하지 않아, 반드시 염기성 용제를 써서 용해시킨 다음(이전에는 재를 사용), 환원제 또는 발효균이 번식하는데 필요한 영양제를 넣고 충분히 저어 발효를 촉진시킨다. 염색액이 갈녹색을 띠고 표면에 흑남색의 끈끈한 막과 질은 남색의 거품이 떠오르면, 염색을 시작한다.

재단원리 면에서 객가남삼은 구조가 간단하고, 평면재단형식에 속하고, 넓은 폭은 일하기에 적합하다. 객가부녀의 근면한 사회적 역할과 의복은 일종의 실용성과 기능성의 상징이다. 중국 남염 공예는 역사가 길고, 환경오염에 해가 없는 천연 염료이고, 식물성염색의 우아함과 단아한 멋은 화학염료로는 비할 수 없다. 전통민족복식의 갖는 의미는 그 민족 생명발전의 흔적이며, 강인하고 근면한 객가여성의 영광과 전통문화적 언어이다. 현대의복의 디자인과 제작에 있어 화려함과 유행의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과 대자연간의 자원의 활용과 환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쳐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六堆客家藍衫與藍染之探討

鄭惠美
實踐大學

服飾文化是人類生活藝術的智慧結晶之一，自古婦女致力於織布女紅、染色用料，除了滿足家人溫暖、護身等生理需求之外，服裝形式與結構乃至裁剪方式、裝飾風格，無不展現出民族的特色與聰明智慧。本文研究的目的主要在分析客家藍衫的結構與製作過程，在藍衫結構研究上以實物分析為主，歷史文獻為輔，針對六堆地區客家傳世藍衫做蒐集調查，包括筆者的收藏以及屏東客家文化館、高雄歷史博物館以及實踐大學服飾博物館之相關收藏進行服裝尺寸之丈量與結構分析。在藍染探究上以田野調查為主，實地走訪藍衫製作老藝師以及地方耆老，透過藍染工藝專家的探訪以及藍草採集、製藍的過程記錄藍染工作程序，以期發掘紀錄六堆地區客家服飾文化的精華與先民生活智慧。

客家婦女傳統服裝，一般稱為「長衫」、「藍衫」或「大襟衫」(俗以右手為大手，而上衣右掩前胸的部分稱為「大襟」，相對的被掩在裏面的稱為「小襟」)。「長衫」是指其衣長及膝，「藍衫」是指稱其布料顏色，「大襟衫」則是其開大襟的形式而言(林成子，1989)。客家藍衫在大襟處、袖口反折部份有鑲緞裝飾，年輕婦女再於鑲緞配色布外緣加縫花邊織帶，據傳這種藍衫式樣是從清朝時期流傳下來的(鍾鐵民，1998)。北部客家婦女大襟衫與台灣閩籍婦女的大襟衫較類似，袖口不一定有反折，藍衫在客家服飾文化上有其特殊的形式與象徵意義，「客家藍衫」在台灣傳統服飾文化上幾乎是一個專有名詞，特指台灣高屏一帶客家婦女的大襟衫。

客家婦女非常勤於勞動，為工作方便主要穿著衫褲，甚少穿著裙裝。客家婦女在工作時，通常將大襟衫之前襟提高拉摺塞入褲腰位置以免衣襟垂地弄髒，成為「前襟短後襟長」的「工作服」造型，從田間返家入內再把前襟拉回原狀，就成為「前後襟齊長」的「一般家居服」。為因應勞動時將衣裾塞入褲腰的

需求，藍衫衣裾兩脇都開高叉，這與一般閩籍大襟衫開叉形式大不同。

客家藍衫裝飾非常簡單但又具有文化脈絡內識別的意義，裝飾部位主要在大襟、袖口上的配色鑲緞與織帶，鑲緞花邊為多色提花織造，是年輕婦女藍衫上的主要裝飾，中年婦女藍衫使用白色布條鑲緞，老年婦女則不做裝飾，樸素而簡潔。

客家藍衫裁剪對於布料的使用非常精簡，小襟(或稱內襟，被掩蓋在大襟裡面者)有短襟或剪接的形式，接襟處甚至由二塊以上布料接合，充分顯現出節儉的美德與物盡其用的巧思。

六堆客家藍衫使用的布料多為棉、麻，絲質較少，布料色彩以「青、藍、黑」三色為主。台灣藍染所使用的藍草植物主要為「山藍」與「木藍」兩種，山藍主要產於台灣北部，適合生長在低海拔背陽山谷坡地，葉片較大秋季開淺紫色如小喇叭狀的鐘形花，種植二、三年後每年五月、十月可兩次採收莖葉，以沉澱法加工製造染料。「木藍」植物種類最多、分布地最廣，熱帶至亞熱帶地區都適合繁殖生產，葉片為羽狀、花朵淺紅色呈小穗狀，種子包覆於黑色豆莢內。六堆客家藍衫主要是以木藍染色。

藍澱染料「沈澱法」製作步驟：藍草→浸泡(釋出藍色素)→撈起枝葉→加入石灰充分攪拌(與空氣接觸氧化變成藍色細小泡沫)，藉由石灰重量將藍靛素沈澱於池底形成泥狀，過濾水分後成為膏狀的「藍澱」染料。

「藍澱」染料是一種非溶性藍靛素染料，對纖維並不具有親和著染作用，必須利用鹼性溶劑溶解(古法使用木灰)，再加入還原劑或發酵菌繁殖需要的營養劑充分攪拌促進期發酵，當染液呈現褐綠色、液面上浮出黑藍膠膜與深藍色泡沫的藍

花，即可進行染布。

從裁剪原理看客家藍衫其結構造型簡單，屬於平面裁剪形式，寬大的形式有利於工作勞動的需求。客家婦女勤勞工作的社會角色，服裝主要是一種實用性與功能性需求而非裝飾與諱誇家庭財富的象徵。

中國藍染工藝淵源流長，藍靛染料是一種無環境污染公害的天然染料，植物染色所呈現的優美韻味與淡雅氣質是化學染料所無法比擬的，傳統民族服飾的義涵是一個民族生命發展的軌跡，一個堅韌、勤儉客家女性的光榮符號與傳統文化的語彙。反思現代服裝的設計與製作，應該不只是華麗與時髦的創造，應該在人和大自然間的資源取用與回報上必須被審慎思考與關心。

六堆客家の藍衣と藍染の探討

鄭惠美
實踐大學

服飾文化は生活藝術に於ける智慧の結晶の一つで、昔から女の人は織や染、手藝に長けて、家族の衣生活の需求を満す上に、服式の構成や裁ち方、装飾のテイスト等に民族の特色や智性的な心掛けをして来た。本研究の目的は客家の藍衣の構成と製作過程を主として分析する。藍衣の構成研究は實務分析を主とし、歴史文獻を輔佐役として、六堆地區客家の傳統の藍衣を蒐集調査をした。

それ等は筆者の收藏品及び屏東客家文化館、高雄歴史博物館及び實踐大學服飾博物館の關係筋收藏品で、同時にサイズ面と構成面の分析をした。藍染探究は田野調査(實地)を主とし、地方の古い仕立屋の老技師訪問と藍染工藝家訪問、藍草の採集、藍染の過程記録等に依つて六堆地區服飾文化の精華と先民の生活の智慧を發掘し記録に及んだ。

客家婦女の傳統服装は一般に「長衫」、「藍衫」又は「大襟衫」(右手を大と稱し前合せで右が上になるので「大襟」とえい、反對に左が上になると「小襟」と云つた。「襟」は打合せの意)。「長衫」(長著)は著丈が膝迄の服で、「藍衫」は服の色彩を指し、「大襟衫」は前の打合せを指す(林成子, 1989)。客家藍衫は打合せの所と袖口に折り返しの配色見返し装飾があり、若い娘は見返しの配色にレースセテープを加えたりする。この種の藍衫スタイルは清朝時代から傳はつている(鍾鐵民, 1998)。北部の客家婦女の人襟衫と閩南籍婦女の大襟衫は割合似通つていて、袖口の折り返しのないものもある。藍衫が客家の服飾文化に於て、スタイルが異なるのは特殊な象徴意義を持ち、台灣の傳統服飾文化では専用名詞であり、特に高雄屏東一帶の婦女の人襟衫を指しと云う。

客家の婦女は非常によく動く、それで仕事し易い様にズボンスタテルガ多く、スカートはあまり穿かない。客家婦女は仕事をする時、前身の裾部份をズボンのウエストに挟み込んで汚れない様にする。それで「前襟短後襟長」(前裾が短かく、後の長い服)と云う仕事者スタイルとなり、田仕事から家へ歸ると前裾は元に逆つて、「前後裾丈が同じ」の一般ホームウェアとなる。この二つの機能を充す爲、藍衫衣は兩脇に高めのスリットがある。これが一般の閩籍(福建)の大襟スリットと違う所である。客家藍衫の装飾は簡單で然も文化脈絡の中で識別の意義を持つ、装飾部位は主に大襟と袖口の上配色見返しとテープ、又はレース等の装飾は若い娘の主な装飾で、中年の婦人は白い布を見返しにし、老人は装飾がなくて質素である。

客家藍衫のカツテイングは用布裁ち合せがぎつしり合理的で、小襟(内襟とも稱す、内側にあつて大襟に掩はれる、下前の意)には短襟又は切替式があつて、接ぐ所は二片以上の布が接ぎ合さり、充分に節約の美德と合理性の巧みを示す。藍衫に使用する布は棉、麻が多く絹は少い、布地の色彩は「スカイブルー、ダークブルー、ブラック」の三色が主である。台灣の藍染に使はれる藍草は「山藍」、「木藍」の兩種で、山藍は北部の低海拔山谷の麓(ふもと)で背陽の地が生長に適し、葉は割合大きく秋に紫色のラツパ状、鐘型の花が開き。植えて二、三年後毎年五月、十月に莖、葉の採收をし、沈澱法で染料を作る。「木藍」は種類が最も多く、廣く分佈し、熱帯から亞熱帯地區が繁殖生産に適する、葉は羽状で花は淺紅色、穗状を呈し、種は黒い莢の中に覆はれる。六堆客家藍衫は木藍で染色

される。

藍澱の染料「沈澱法」製作法は：藍草→浸泡(藍色素を釋出)→枝葉を撈去→石灰加入充分攪拌(空氣と接觸→酸化→細かい藍色泡沫)，石灰の重量で藍澱素が沈澱，池底で泥狀となる，水分濾過後膏狀の「藍澱」染料となる。「藍澱」染料は一種の非溶性藍澱素染料で，纖維に對して親和と染付作用がないので，アルカリ性溶劑で溶かす(古法は木灰使用)。それで還元劑又は發酵菌を入れて，必要な營養劑を繁殖させ，充分に攪拌して發酵を促進する，染液が綠色を呈し，液面に黒藍膠膜と深藍色泡沫の藍花が浮き出すと，布染を始められる。

裁斷原理から見る時，客家藍衫の構成する造型は簡單で，平面裁斷である，たつふりした造型は勞動に適する。客家婦女の勤勉な社會役割から，服裝は主として實用且機能的需求に沿つて，裝飾や家財として象徴を意味しない。

中國藍染工藝は淵源が遠く，藍澱染料は環境汚染等公害の天然ない天然染料で，植物染の呈する優美な奥床しさは化學染料の及ばないりものである，傳統民族服飾は民族生命發展と軌跡を共にする，堅韌で勤儉な客家女性の榮ある標號は傳統文化の語彙である。藍衣を現代の服裝デザインや製作と照し合せる時，華やかなファツションの中で，人間が大自然の資源をすり減らす事とを引き比でと慎重に考之るべき事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ようか。